

朴대통령 “기업, 선도적 투자 필요한 시점”

10대그룹 총수 첫 회동 ‘정치’ 거리두고 ‘경제’ 집중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격렬로 정국이 팍 막힌 가운데 당분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내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했다. 이어 29일 오전에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보고받고 토론했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3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집권 첫째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로 꼽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성과를 내기 위한 ‘재계 다독이기’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초에 30대 그룹이 14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12만8000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한 것이 경기부양 노력에 큰 힘이 됐다”며 “그동안 창조경제 구현에도 앞장서 주시고 일감 나누기와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에도 협조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고 재계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전방을 내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

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계의 경제민주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에 변질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문제는 정치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회화 등 재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총수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창조경제 사이트는 이른 시일 내에 변질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분야별로 적극 참여해 새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돼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역을 해주시고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이 연간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의견에 귀기울여달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회장단과의 오찬에서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고용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근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우 LG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美·나토, 이르면 오늘 시리아 공습 가능성”

킹 美특사 내일 전격 방북

NBC·FT 보도

나토 긴급회의 주목

초읽기에 들어간 서방의 시리아 공격이 이르면 29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오는 29일 시리아 문제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겠다고 강하게 버텼으며 우방인 러시아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리아 공습 이르면 29일”-나토 긴급회의 주목=미국 NBC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군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은 이르면 29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이르면 29~30일 시리아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29일에 제한적 공습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토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나토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긴급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즉각 군사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사드 정권 “모든 수단으로 방어”-러시아·이란도 반발=아사드 정권은 지난 21일 화학무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방이 공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일 서방의 개입 움직임에 반발한 러시아는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서방은 이슬람 세계에서 수류탄을 던지듯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연합뉴스

케네스 배 석방 가능성

김정은 체제 첫 美관리 방북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해 오는 30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배씨가 10개월 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을 공식방문하게 됨에 따라 한동안 악화돼 온 미국과 북한 관계의 개선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오후 마리 하프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북한으로 건너가 31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킹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케네스 배를 용서하고 특별사면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방북기간 북한 당국과 배씨의 사면과 석방문제를 협의한 뒤 북한 당국이 특별사면을 하면 배씨와 함께 31일 귀환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뉴욕채널 등을 통해 배씨 석방문제와 관련해 미국 고위관리의 방북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기라운지

박지원, ‘알선수재죄’ 금품 공여자도 처벌 추진

민주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28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알선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자를 알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발의했다.



원위의 직무에 속한 사장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장의 알선을 부락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김영록, 쌀 농가 생산비 보장법안 발의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 산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들이 한가마당 17만83원에서 19만5901원으로 2만5,818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643원을 받게 되고, 기존에 가마당 1만1475원(1ha당 61가마 기준)을 받던 고정직불금에 매년 약 38% 인상된 1만5873원(1ha당 63가마 기준)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가마당 3만원 인상된 19만원을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확기 쌀값이 16만원일 경우 정부안대로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변동 직불금을 한 가마당 1만

김승남 “수출 농산물 위한 항균제 개발을”

민주당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28일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첨가제(항균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이 수입 농산물에는 부패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수출 농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 농산물이 장거리 수송을 통해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신선하게 보이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식품첨가제가 표본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등 전남 4곳 우수사례 선정

지역발전위원회 올 사업평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등 전남지역 4개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의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8일 여수에서 시상식을 갖고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녹색도 ▲장흥 바이오피드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인자도 톨립공원 조성 사업 등 전국 지자체가 진행한 21건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한옥을 통한 목재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 영암뿐 아니라 화순, 광양, 구례, 고흥 등지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며 예산이 부족했지만 5개 시·군 이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정원박람회 녹색도로는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꿈의 다리를 예술적으로 만들어 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조례 개정을 통해 물값을 낮춰 분야에 효과를 준 바이오피드 산업단지 기업용수도와 민관이 협력해 대규모 축제로 만들어진 톨립공원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광기자 kroh@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유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유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어등산골프장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부실속 친라킹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 (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항동 생산토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 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